

전주시, 소류지 생태공원 내 시설물 정비

이달 말까지 2000만원 투입... 파손된 바닥데크·노후화된 목재난간 정비 등 16건 정비사업 추진

전주시가 송천동 오송제 등 시민들의 생활 속 자연학습공간인 소류지 생태공원 내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총 2000만원을 투입해 용도 폐지된 도상지 내 소류지 생태공원 8개소의 16개 시설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소류지 생태공원은 송천동 오송제와 평화동 지시제, 팔복동 구주제, 효자동 서은제·황학제, 용정동 성곡제, 삼천동 삼산제, 용복동 신덕제 등 총 8개 소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수공간 및 자연학습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소류지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이를 위해, 시는 소류지 생태공원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파손된 바닥데크와 노후화된 목재난간 정비 등 16건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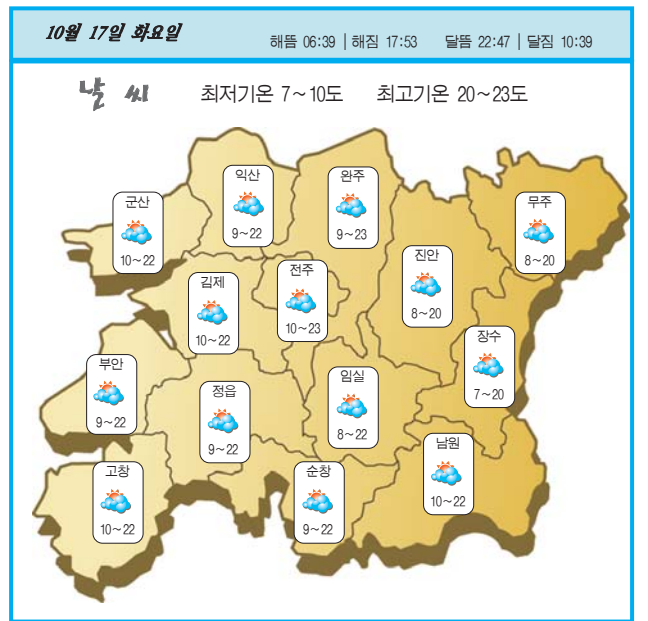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소류지 생태공원 내 노후·불량시설물 정비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학교폭력 예방 적극 나서달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전주서곡중학교를 방문해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의 명복과 애도를 표하고 교육현장 속 학교폭력의 적극적인 예방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이 학교 교장과 상담교사 등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매뉴얼 행동지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학생 자살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능한 교육현장을 질타했다.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식생활 운동 원광대, 학생동아리 '다솨이' 운영

농축산식품부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킹의 2017년 바른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다솨이' 학생동아리 운영을 통해 환경·건강·배려를 실천하는 '바른 밥상, 밝은 100세' 식생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에서 14개 대학이 선정된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은 청년층 식생활 및 식습관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식생활 교육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 정신을 함양하며, 청년층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한 식생활 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바른 식생활의 범국민적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뜻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다솨이' 동아리는 원광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1~2학년 학생 중 희망 학생 36명으로 구성

된 가운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학기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활동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대상 바른 식생활 교육, 대학생 대상 아침밥 먹기, 지역민 '가족밥상의 날', 예비교사 대상 우수농어촌 체험 공간 안내 등이다.

동아리 회원들은 보육원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감사하는 식생활, 소금·설탕 섭취 줄이기, 편식하지 않기를 실천하도록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바른 밥상, 밝은 100세'를 위한 바른 식생활 실천을 안내했다.

또한, 아침 결식이 많은 연령층인 대학생들에게는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나눠주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였으며, 지역 축제장에 찾아 방문객들에게 '가족 밥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권하기도 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북대신문방송사 문학상 당선작 전집 출간

원고지 9000매 5권 분량... 최명희 작가 소설 '정옥이' 도 담겨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전북대신문방송사에서 60여년 동안 공모한 문학상의 당선작을 묶은 '전북대신문방송사 문학상 당선작 전집'을 출간했다.

전북대 신문방송사에서는 1954년부터 전북대신문 학술문학상이라는 명칭으로 작품을 공모, 문학계를 이끌어갈 동량을 발굴하고 육성해 왔다.

이후 2001년부터는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대표 장성수)과 함께 최명희청년문학상을 제정해 전국 고교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해 왔다.

2009년부터는 가람 이병기청년시문학상·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으로 계승, 현재 대학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당선작을 총망라한 이번 전집

은 5권으로 구성돼 있다. 문학상의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학술문학상 I'(1957~1969), '학술문학상 II'(1970~1979), '학술문학상 III'(1980~2000), '최명희청년문학상'(2001~2008), '가람이병기청년시·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2009~2017)으로 각 권의 이름을 달았다.

문학상의 역사만큼 작품수도 상당하다.

시 114편, 소설 97편 등 총 300여 편의 작품이 담긴 전집은 분량만도 200자 원고지 9000매에 이른다.

특히 최명희 작가 역시 1971년 소설 '정옥이'로 당선된 영예를 안았다.

이남호 총장은 "개교 70주년을 맞아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등을 통해 'CBNU Premium'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가람 이병기 선생'과 '최명희 작가'의 이름으로 발굴되



는 문학 인재들이 전북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주신 박준호 주간과 발간에 힘을 보태주신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 장성수 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전북교육문화회관 문화예술 특별공연 마련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관장 허희준)이 주최하는 '중학생과 수능생을 위한 문화예술 특별공연'이 이달부터 12월까지 풍성하게 열린다.

이번 사업은 전북교육문화회관이 학생들에게 한옥마을 상설공연, 뮤지컬, 비보이 등의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보임으로써 감동 및 문화적 경험과 함께 청소년의 예술적 감성을 함양하며 공연 분야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했다.

10월과 12월에는 중학생 대상 문화예술 공연인 '중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나눔 페스티벌' '마음톡톡! 감성톡톡! 지성톡톡!'으로 '전주 마당창극' '놀이극', '창작 뮤지컬'과 '비보이'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11월에는 대학입학수험능력시험을 마친 수능생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수능생을 위한 특별공연인 '즐거워요 행복해요' '뜨겁뜨겁 토닥토닥 콘서트'가 진행되는 데 마당창극, 창작 뮤지컬, 비보이 공연 외에도 다양한 각 타악기들의 울림과 어우러짐, 개성 있는 타악 연주자들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색깔의 타악 창작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정해은 기자

전북교육정책포럼 27일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중앙정부 교육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교육자치의 변화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전북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교육자치 큰 걸음, 교육부 권한 배분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오는 27일 오후 3시 30분 전북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지방교육자치 사무 배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 정은근 영광중 교사, 이현우 덕천 육행정책제 개편에 따른 교육자치의 변화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전북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주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에 따라 교육부로 집중돼 있는 유치중등교육의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단위학교로 이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규모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국립순천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